

전북도 발굴 과제, 전국에 확산된다

정부 발표 지역 민생규제 혁신방안 50건 중 도시재생사업 경미한 변경 범위 확대 등 3개 과제 선정

전북도에서 발굴 건의한 '도시재생사업의 경미한 변경 범위 확대' 등 3개 과제가 정부에서 발표한 지역 민생규제 혁신방안 50건에 선정되어 전국에 확산될 전망이다.

전북도에 따르면 20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논의·확정한 지역 민생규제 혁신방안 3개 분야 50건 중에 전

북도 발굴과제 3건이 선정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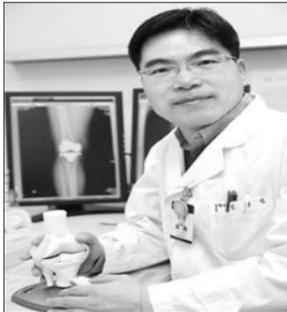
이번에 선정된 3개 과제는 지역개발 촉진분야 '관광단지 지정시 도시계획심의·교통영향평가 등 통합심의', 지역개발 촉진분야 '도시재생사업의 경미한 변경 범위 확대', 영업부담 완화분야 '어촌계 어장에 대한 어촌계 및 어촌계원의 공동운영 허용' 등으로 이들 과제는 2019년부터 중앙부처와 전

북도, 시·군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발굴·개선 추진된 것으로 개선효과가 전국에 적용되도록 확산될 예정이다.

특히, 도시재생사업의 경미한 변경 범위 확대 과제는 지역발전 제한 완화를 위한 '지역개발촉진분야' 대표사례로 선정됐으며, 신속한 시행·체감을 위해 이미 관련 법 시행령이 개정 완

료되어 전국에서 시행되고 있다.

장운희 도 법무행정과장은 "우리 전북도에서도 정부정책에 발맞추어 선제적으로 지역 민생규제 해결에 노력할 것이며, 이를 위해 규제과제 발굴 단계부터 개선까지 전 단계에 걸쳐 도민과 함께하는 규제개혁을 추진할 계획이다"며 "도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 드린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전북도, 군산의료원장에 김영진 원장 내정... 임기 3년

전북도는 군산의료원 원장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군산의료원에 탁월한 경영능력으로 의료원 경영 정상화를 이룩한 김영진 원장을 내정한다고 밝혔다.

내정 배경은 7년여간 군산의료원을 책임지던 김영진 원장의 경영 및 재정 상태를 개선했고, 지역거점공공병원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됐다.

2017년~2019년 167억원의 당기순이익을 냈으며, 부채비율을 2016년 205%에서 2019년 72%로 감소시키는 등 경영상태를 개선했고, 보건복지부 주관 운영평가에서 2017년, 2019년 'A' 등급, 전라북도 경영평가 '가' 등급 4년 연속(2016년~2019년) 획득했다.

또한, 감염병 격리병상과 급성기 진료시설 확충 등 지역거점공공병원의 역할 수행에도 책임을 다하고 있어 앞으로 군산의료원을 발전시킬 수 있는 적임자로 보여진다.

도는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난 1월 '군산의료원 원장추천위원회'를 구성해, 2월 14일 제2차 원장추천위원회 회의에서 원장추천자를 결정할 바 있다.

군산의료원의 임기는 임명된 날로부터 3년간(2020. 4. 1. ~ 2023. 3. 31.)이다. /김진성 기자



신규 교사들의 첫 출발 축하

20일 오후 2시 전북교육문화회관 공연장에서 2020년 3월 1일자 유·초·중등 신규교사 임명식 수여식이 열린 가운데, 김승환 교육감이 신규 교사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 <관련기사 5면>

전북도, '등록야영장 지원 공모사업' 선정

국비 1억7800만원 확보... 안전한 야영 환경 조성·이용객 안전 강화 추진

전북도는 도내 등록야영장 19곳이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2020년 등록야영장 지원 공모사업'에 선정, 국비 1억7800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사업은 안전한 야영장 환경 구축 및 이용객 안전을 강화하고 야영(캠핑) 문화를 지역의 다양한 관광자원과 연계,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다.

지원사업은 △야영장 안전·위생시설 개보수 △야영장 화재안전성 확보 △일산화탄소 경보기 대여 체계 구축 등 3개 세부사업으로 나눠 공모가 이뤄졌으며, 공모 결과 전북도는 3개 사업에 모두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도는 앞으로 국비 포함 총 4억2500만 원을 투입, 등록야영장별 지원을 통한 안전한하고 쾌적한 야영 조성으로 야영산업 발전을 꾀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도는 야영장 안전위생 개보수 및 화재안전성 지원사업에 선정된 야영장 19곳에 대해 △소화기함 및 재해방지시설 설치 △CCTV 설치 공사 △일산화탄소 경보기 구입 △방염천막 교체 △이격거리 확보를 위한 글래핑 시설 이전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한다.

특히 이번 지원사업 중에는 '일산화탄소 경보기 대여 체계 구축' 지원이 포함되어 있어, 이 사업을 통해 개인

이 설치한 텐트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질식사사고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현재 도내 야영장은 115개소가 등록되어 운영 중이며, 작년 한 해 동안 도심을 떠나 자연 속에서 힐링하고 싶은 전국 각지에서 온 48만명의 캠핑객들이 도내 야영장을 찾아 이용했다.

광주시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최근 캠핑이 가족여행의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 잡은 만큼 즐거운 캠핑을 즐기기 위한 안전의식 또한 높아져야 한다"고 강조하며, "안전한 캠핑을 위한 환경 조성 및 이용객 안전 강화를 위해 적극 힘쓰겠다"고 밝혔다. /김진성 기자

도, 소규모 장애인복지시설 컨설팅 지원

45개 시설 선정해 사회복지전문가 현장 파견

전북도에서는 소규모 장애인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오는 3월부터 11월까지 민간사회복지전문가를 통해 시·군 추천을 통하여 45개 시설을 선정해, 사회복지전문가를 현장에 파견하여 컨설팅을 지원할 예정이다.

도는 컨설팅 지원을 통해 소규모 시설 운영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장애인 복지업무의 내실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북도의 장애인거주시설과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예산은 661억원으로 해마다 약 2%정도가 증가하고 있어, 복지예산이 증가하는 만큼 보조금 운영의 투명성이 요구되고

있다.

최근 일부 소규모시설에서 문제가 발생하여 이러한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고, 시설 운영의 어려움 해소와 전문성 강화를 위해 컨설팅 지원을 추진한다.

김영식 도 노인장애인과장은 "컨설팅 지원으로 소규모 장애인복지시설의 재무·회계·서류작성 등의 전문성을 높이고, 더불어 이용자의 만족도까지 높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보조금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신뢰받는 복지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종합계획 수립으로 전북 대도약 이끈다

전북도, '추진기획단 킷오프 회의'서 발전전략 수립방안 등 논의

전북도가 전북 대도약을 이끌 향후 20년간의 미래 발전전략 수립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

전북도는 20일 오후 2시 도청 종합상황실에서 전북의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할 전라북도 종합계획 수립을 위해 '추진기획단 킷오프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도 종합계획은 상위계획인 국토종합계획을 도 단위에서 구체화한 계획으로, 도지사가 수립하는 지역발전 관련 최상위 법정계획이며 전북도의 비전과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이다.

도는 내실 있는 종합계획 수립을 위해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하고, 도·실·국장, 시·군 기획부서장, 전북연구원 연구진을 포함해 40여명으로 추진기획단을 구성·운영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최용범 행정부지사를 비롯해 추진기획단 36명이 참석한 가운데, 도 종합계획 수립방안에 대한 전북연구원원의 설명과 각 주체별 역할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먼저 도 종합계획의 수립 방향은 국토종합계획에 반영된 지역 계획을 바탕으로 비전과 목표를 제시하고 공간 설정 방향과 부문별 발전전략을 수립한다는 것이다.

발전전략에는 국토부 '도 종합계획 수립 지침'에 따라 국토종합계획, 국가환경종합계획 등 상위계획에서 제시한 추진전략과 방향성을 반영할 계

획이다.

이와 함께 계획의 집행 및 관리를 위한 행·재정계획 및 투자·재원 방안 등을 포함하며, 시군별 발전계획안을 담고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도 종합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다.

또한 도·시군·연구원 간 역할분담 및 협조체계 구축방안 등을 제시하고 각 주체별 협조를 요청했다.

도와 시군에서는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사항에 대해 관련 계획 및 정책 사업들을 발굴하고 추가사업을 제안할 계획이며, 연구원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도 종합계획 사업목록을 작성할 예정이다.

향후 일정으로 추진기획단을 비롯하여 각계 기관, 지문단, 도민 등 다양한 의견과 수요를 반영하여 도 종합계획 시안을 작성한 후 4월 중에 추진기획단 회의에서 다시 논의 및 정비하기로 했다.

최용범 행정부지사는 "도 종합계획은 국토종합계획을 구체화한 계획이자 지역의 특성화된 발전을 유도하는 계획"이라며, "제5차 국토종합계획에서 전북 비전으로 제시한 '사람이 모이는 농생명·신재생 융복합 신산업의 중심'이라는 기본방향을 바탕으로 지역 특성 및 여건을 반영해 전북 대도약을 이끌 수 있는 2040년 전북 미래 발전전략 계획으로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상속한정승인공고

망 이광희(1938. 2. 20. 생 2015. 12. 17. 사망)의 재산상속에 대한 상속한정승인 신고가 제주지방법원 오충현 사법보좌관의 심판으로 법원에 수리되어 민법 제1032조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채권자 또는 수증자는 공고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청구인에게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기일 내에 신고하지 아니하면 청산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사건번호: 2020년단61 상속한정승인 사법보좌관 오충현
▶피상속인: 망 이광희(1938. 2. 20. 생 2015. 12. 17. 사망) 최후주소: 제주도 서귀포시 중앙로48번길 30(서귀동)
▶공고인: 이재신, 이해민, 이재은
▶상속한정승인수리일: 2020. 1. 23.
▶공고기간: 2020. 2. 21. ~ 2020. 4. 20.
▶주소: (청구인1) 이재신
군산시 미포로 42, 310동 1904호
(미포동, 미포3)주공아파트
(청구인2) 이해민
군산시 수송동로 100, 103동 605호
(수송동, 군산수송세리영리텔아파트)
(청구인3) 이재은
군산시 미포로 64, 103동 402호
(미포동, 은파리텔시빌파크)
연락처: 010-6486-9757(이재은)

모 집	전주교육대학교 평생교육원 우 석 대 학 교 평생교육원	환 영
-----	----------------------------------	-----

스피치 · 긴장해소 · 웃음치료(힐링) · 면접

현대는 소통의 시대, 능력의 시대, 이미지 시대, 감성의 시대입니다. 스피치학의 이론과 실기의 정통기법을 전북에서 최초로 개척한 김양욱입니다. 현대인의 필수로 자리 잡은 본 과정에 주저하지 마세요. 저명한 등록금으로 각 평생교육원에서 즐겁게 주, 야간반으로 학습합니다.

▶ 전담교수 주요경력 <
· 전주교육대학교 겸임교수
· 전북대학 토론과 면접 담당교수 역임
· 스피치자격시험 김정위원장
· 한국스피치, 용변협회 전북회장
· 전북인재교육원 및 기관, 단체 특강교수
· KBS TV 아침마당, MBC TV, JTBC 출연 및 강의자
· 스피치 칼럼리스트 * 전주매일 부사장
· 저서 "365스피치커뮤니케이션" "나를 세운 말, 말" "스피치 노하우" 등

학교별	주요과정	지역별(자유선택)
전주교육대학교	스피치기법, 스피치 최고지도사(자격증), 스피치웃음치료(자격증)(주,야간)	전주, 임실
우석대학교	스피치기법, 스피치 최고지도사(자격증), 스피치웃음치료(주,야간)	전주, 완주, 진안
군산대학교	스피치기법, 스피치 최고지도사(자격증), 스피치웃음치료(자격증)(주,야간)	군산, 부안, 서천
전북과학대학교	스피치 지도사(기초, 고급, 자격증), (스피치, 긴장해소, 웃음치료 등)	정읍, 고창
원광보건대학교	스피치&긴장해소(야간)	익산, 완주
남원스피치 평생아카데미	스피치기법과 웃음치료(야)(웃음자격증)	남원, 장수, 순창
김제스피치 평생아카데미	스피치&웃음치료(야)(웃음자격증)	김제, 부안

상담전화 (전체) : 285-6676, 231-6669, 010-7304-5665(주,야)
* 수시 선착순 모집합니다.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www.jmaeil.com